



우리가 뭉치면 박근혜를 꺾을 수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박근혜 정부는 온갖 부패와 특권으로 무장한 슈퍼 '갑'들이 뿔뿔 뿔뿔 만든 강성 우파 정부였다. 저들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을 꺾어 못하게 만들며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쥐꼬리만한 복지 공약들을 팽개치며 낡고 부패한 우파들을 곳곳에 심어 나갔다. 그러나 그 결과, 박근혜는 집권 초부터 정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허우적대고 있다. '갈레 경연대회'가 된 인사 청문회와 줄줄이 낙마, '윤창중 노팬티 사건'까지 악재도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악재와 위기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낡고 부패한 우파에 기반한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경제·한반도 위기라는 객관적 조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스스로 위기와 모순을 해결하기 힘들다.

게다가 박근혜는 갈수록 복지 공약 먹튀와 재벌 퍼주기로 기울고 있다. 통상임금 떼먹기와 밀양송전탑 폭력 강행 시도에 이어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도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끌어들이며 '노사정대타협' 쇼를 벌이는 것도 우습다.



박근혜의 위기는 투쟁의 기회다. 얼마 전 파업 16일만에 '을들의 반란'의 승리를 보여 준 택배 노동자들.

이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좋다'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며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사기극이다.

박근혜의 "창조 경제"는 기업 이윤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파괴경제'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

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위기 속에 노동자들이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구와 울산의 건설 노동자들이 최근 승리를 거뒀고, 케이블 방송, 이마트 등에서 새로운 물결이 노동조합에 합류하고 있다. '을들의 반란'을 상징했던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파

업 16일만에 승리한 바 있다. 박근혜가 거둬온 악재와 정치 위기 속에 헤매고 있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기회다. '밀면 밀린다'는 점이 드러난 박근혜에 맞서 단결과 연대를 통한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 건설을 강화하자.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지 마라!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며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불법단체와 대화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와 해고자들에 대한 탄압과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가 해고 노동자들을 몰아세우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가 무엇을 노리는지는 명백하다. 눈엣가시인 전교조·공무원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특권·경쟁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무릎꿇게 만들면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단결해서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공무원노조 공격은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

나고 있다. 박근혜가 취임 초부터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탓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전교조 조합원 대상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공무원 해고자 복지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주장하지 않아, 법안 폐기가 아니라 개정만을 말하는 약점도 있다.

노동기본권

따라서 민주당의 법안에만 기대지 말고 독립적인 투쟁 건설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며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또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을 특권·경쟁 교육과 총액인건비제·연금 개혁 등에 맞선 투쟁과 결합시켜 나가자.

전교조·공무원노조의 공동 투쟁도 강화하자. 이런 투쟁이 공동의 적에 맞서 싸

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공부문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공기업 노동자들과 만난다면 더 좋을 것이다. 투쟁 속 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운동은 더 전진할 수 있다.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박근혜가 계속 헤매고 있는 속에서 정부의 전교조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에 수백 명이 서명했다.

특히 반값제도 최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차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도 거부 선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저항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찌감

치 거부 선언을 조직해 온 교사들의 노력이 거둔 성과이기도 하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더 광범하게 결집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도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럴 때, 이미 주춤거리는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지속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 105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5월 23일 발표한 내용은 “민영화”라는 단어만 안 썼지, 사실상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이다.

우선, 수서발 KTX에서 코레일의 지분을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영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지분을 팔면 금세 민영화로 갈 수 있고, 최종안에서 사기업을 끌어들이 가능성도 있다.

신설·적자 노선은 아예 민영화 하겠다고 했다. 자회사 전환을 확대하고, 간선·지선 등에 ‘경쟁 구조’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철도를 이윤에 눈 먼 자본의 돈 놀이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이 “공공성이 조화된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이라고 사기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은 분할 민영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독일에서도 철도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회사 분할 매각 계획의 일부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10만 명 넘게 해고됐다.

재앙의 질주

게다가 정부의 방안은 주요 간선에까지 사기업을 참가시키는 점에서 대형 참사와 요금 폭등으로 악명높은 영국식 분할 민영화와 더 비슷하다. 정부는 “코레일 독점의 비효율”을 핑계대며 안전하고 값싼 공공 철도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동안 코레일 관료들도 자신들의 잇속 때문이라도 철도 민영화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코레일 관료들은 공공성보다 효율성



박근혜가 추진하는 영국식 분할 민영화의 미래 1997년 런던 철도 사고.

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박근혜와 같다. 용산 개발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인력 감축’ 카드를 내밀기도 했다.

민주당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장본인이고, 지금도 ‘경쟁을 통한 효율화’는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코레일 사측이나 민주당과는 독립적으로 기층에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계속 매진해야 한다.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한 파업과 정치투쟁을 계속 건설해 나간다면, 재앙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거짓말로 뒤덮인 가스 민영화 논리

박근혜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중동은 가스공사가 SK보다 비싸게 LNG를 사오고 있다며 가스 민영화를 촉구한다. 사기업이 경쟁하게 만들면 가스 요금도 싸질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높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것은 오히려 민영화 추진의 결과다. 더 싸게 천연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 시도를 정부가 막았던 것이다.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까 봐 말이다. 반면 사기업은 싸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기가 막히게도 이것이 가스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탈바꿈한 것이다. 구입하려는 쪽이 경쟁을 하면 가격은 오른다는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정부 논리는 황당하다. 대기업들이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수익을 높일 때, 평범한 사람들은 치솟는 가스 요금에 짓눌릴 것이다.

한 가스노조 조합원은 “이미 민영화한 석유 산업에서도 S-Oil이나 GS 같은 대기업들끼리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다. 가스도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조합원은 “민영화하면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이 막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철도노조와 가스공사노조가 힘을 합쳐 민영화에 맞선다면 2002년 철도·가스·발전 파업이 민영화를 막아낸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결과 연대로 지긋지긋한 차별을 넘어서자

“입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해결 힘쓰겠다”던 박근혜의 약속은 역시 사기극이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소리는 그가 세상물정 모르는 ‘수첩공주’임을 다시 드러냈다.

시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4대 보험 등은 그림의 떡일 뿐인데 말이다.

이 정부가 지난 4월에 내놓은 공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도 엉터리였다. 비정규직의 일부만을,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 약직’화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대책이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첩공주’

이에 맞서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가 만들어

져 정규직 전환,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발전시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한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자.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연대하자.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를 도입하고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노조로 조직됐다. 역사적인 하루 파업까지 성공시키며 교육감 직고용을 “대세”로 만들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 전환을 통해 끔찍한 저임금과 차별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힘에

떠밀리면서도 이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더 많은 요구와 투쟁이 터져 나올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화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6월 대규모 집회와 7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과 승리를 위해서는 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만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단결’은 우리의 힘을 두 배로 만들 것이다.

나아가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기층에서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적극 엄호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이다.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홍준표는 “세금 누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 운운한다. 결국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돈 쓰는 게 아깝고, 그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싫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돈보다 생명’이라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 왔다.

그러나 홍준표는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폐업을 강행했다. 이것은 의료 공공성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며 정치적으로 무효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이 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홍준표의 질주를 묵인·방조해 왔다.

무엇보다 재벌 퍼주기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저항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게 박근혜와 홍준표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성노조’라는 비난에 움츠러들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지키면서 맞서야 한다.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지키고 농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폐업 조례안 통과도 계속 막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의 폐업 강행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더 강력한 투쟁의 불쏘시개로 만들자.